

장승의 이미지를 응용한 니트디자인 연구

-텍스타일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애니·이연희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1. 서론

현대의 시대가 산업화되고 문명화되어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확실성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현세의 안위를 걱정한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 지구의 종말론을 논하는 등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매스컴에서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미신과 민간 신앙에서도 알 수 있다. 미신과 민간신앙은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며 또 하나의 종교이다. 한국의 도깨비와 십이지장생, 부적 무속인 등 여러 가지의 민간 신앙은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뿌리내린 친근하고 신성한 한국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현재 의복의 디자인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가장 대중적이며 공동체적인 민간 신앙이지만 아직 디자인으로서의 가치가 개발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장승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사 시대부터 내려오며 동방의 토착문화를 반영한 한국의 민간 신앙의 하나인 장승의 신성적이고 해학적인 미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과 그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첫째, 현대사조에 나타나는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자료와 현대 패션 디자인에 표현된 한국적인 디자인 사례를 조사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인의 민간 신앙에 대한 문헌 및 자료조사와 장승의 이미지에 반영된 한국적인 전통문화와 의미를 현대 복식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셋째, 여러 가지 다양한 장승의 이미지를 디자인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니팅(knitting), 패턴(pattern), 컬러(color) 등의 표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서구사회에 있어서 동양에 관한 관심은 다양성을 표방하는 문화적 다원주의 영향 아래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 동양의 가치관과 생태학적 세계관, 서구가 바라보던 오리엔탈리즘의 시각 조정, 동양 문화의 특수성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는 서구인들의 제국주의적 사고 방식의 한계와 과학 문명으로 인한 인본주의의 상실 등을 동양적 가치관으로 치

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여진다. 과거의 산업혁명 이후 서구의 국가들이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안 경제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던 동양의 여러 국가들은 20세기에 들어 불과 몇 십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심공적인 산업의 근대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서구의 학자들은 청교도적 윤리의식이 없는 동양인들이 서구와 비슷한 자본주의를 급성장시킨 것은 그들만의 동양적 가치관에 힘입은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서구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서구 중심의 지배 이데올로기 밑에서 근대화를 거쳤던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1970년대에 이후로는 역사성과 지역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여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자성적 노력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복식계에도 일어나 많은 디자이너들이 우리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지닌 디자인으로 국제 무대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민족의 정체감을 확인시키며 한국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춘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한국적인 디자인을 첫째, 한국의 개국 신화인 홍익 인간이 상징하는 것처럼 인간 위주의 특성과 음양론의 지각의 장으로 여기는 인간의 삶, 현세 지향적인 면을 강조하는 인간 중심적 디자인 둘째, 자연으로부터 아름다움의 근원을 구한 것으로 형태에 있어 풍성하고 여유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자연 친화적 디자인, 셋째 신과 인간,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아닌 수평적 사고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갈등의 원리 즉 반대와 대립의 이분법적 인지구조가 아닌 조화와 균형의 원리, 즉 관계성을 바탕으로 반영된 평등 평화적 이미지, 넷째 신과 대자연의 결합과 음양의 조화로운 생명의 원리를 바탕으로 두고 현세 지향적인 영원과 민족의 정서를 담아 상징적으로 현대 복식에 반영된 토템 신화적 디자인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2. 장승의 의미와 상징

우리민족의 뿌리 깊은 사상에는 옛날부터 오래 살아온 고목을 숭상하는 전통이 있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영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시골마을에 있는 고목은 당나무라고 하여 보시고 계절에 따른 곡물을 바치기도 한다. 이런 고목 숭배 사상은 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되는 형태로서 고대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의 스키타이 문화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목의 신령스러운 영이 있다고 믿는 나무 에니머즘은 고조선의 시조신화에서 그 문헌적 기원을 처음 찾을 수 있다.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는 국가의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손계 인물이고, 그가 처음 지상에 도착한 곳이 산꼭대기에 서 있는 나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나무는 지상과 천상을 잇는 기능을 가졌다고 믿는 것이다.

숫대와 장승은 나무나 돌을 이용하여 만든 새를 장대나 들기둥에 위에 앉힌 마을의 신앙 대상물을 일컫는데, 이같은 형태의 숫대는 북방 아시아의 우주나무와 하늘새에 대한 신앙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농경문화에 맞게 적응되어져 내려온 것으로 보고있다. 숫대는 공동신앙의 일부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신앙물과 함께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잡신, 잡귀, 액 등을 막아주는 역할과 풍농을 기원하는 역할을 했다.

장승의 형태는 왜곡과 과장을 통하여 대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나타난다. 하나는 도깨비나 사천왕과 같은 수호신상형이고, 또 하나는 민중의 자화상이다. 또 이 두 가지 유형

을 격정적으로 표현한 것,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 할아버지와 할머니 혹은 미소년 상을 전형으로 제시한 것 등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장승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고 질병이나 악귀로부터 마을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으로서 신성을 지닌 경배의 대상이면서도, 삶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민중의 익살과 해학미가 함께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의 디자인은 장승의 해학적이고 신령스런 이미지와 색을 텍스타일 CAD를 사용하여 니팅이나 패턴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디자인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한국적인 디자인의 양상은 인간 위주의 특성과 음양론의 지각의 장으로 여기는 인간의 삶, 현세 지향적인 면을 강조하는 인간 중심적 디자인, 자연으로부터 아름다움의 근원을 구한 것으로 형태에 있어 풍성하고 여유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자연 친화적 디자인, 관계성을 바탕으로 반영된 평등 평화적 이미지, 신과 대자연의 결합과 음양의 조화로운 생명의 원리를 바탕으로 두고 현세 지향적인 염원과 민족의 정서를 담아 상징적으로 현대 복식에 반영된 토탑 신화적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 둘째, 동방의 오리엔탈리즘을 반영한 한국의 민간 신앙의 하나인 장승의 신성적이고 해학성의 마를 찾을 수 있었다. 장승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고 질병이나 악귀로부터 마을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으로서 신성을 지닌 경배의 대상이면서도, 삶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민중의 익살과 해학미가 함께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Textile CAD System은 디자인의 개발은 물론 제작 방법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평직, 능직, 수자직, 특수직 등 다양한 섬유조직의 개발을 도와주며, 또한 염색 및 날염시 색채 배치와 디자인의 확대, 축소 등을 이용한 프린트 패턴의 자유로운 구사와 컬러 시뮬레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니트 디자인을 도토로 처리하여 프린트 디자인시 다양한 색상으로 변경한 칼라 웨이를 제작하여 모니터상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자유롭고 다양한 방향의 디자인 전개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참고문헌

- 박호원 (1986). *숫대신앙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양성원 (2001). *TEXTILE CAD를 이용한 성덕대왕 선종의 이미지 디자인 전개*. 디자인학회.
이필영 (1998). *숫대*. 대원사.
이춘희 (2000).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한국적 이미지의 의미 분석. *복식문화연구* 제8권 4호.
이종철 (1988). *경기도지방 장승. 숫대 신앙*. 국립민속박물관.
임영자 (1996).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연구. *복식* 30호.
한국의 문양. 공간 1976
Korean Motifs. Ahn Graphics & Book Publishers
장승의 이미지 출처; <http://www.soohosin.co.kr>
충청북도 장승, 숫대에 관한 특성; <http://minbak.nfm.go.kr:2000/hwp/jangseng0311.hwp>
우리문화특징-심신각과 장승; http://museum.korea.ac.kr/bbs_data/cul_bbs/020509.hwp
광주, 전남 지역의 당산제 연구(3); http://museum.korea.ac.kr/bbs_data/cul_bbs/020509.hwp